제4장

청대 사상 연구

류희성

1. 머리말

본 보고서는 2021년도 한국에서 발표된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 논문 중에서 유학 연구와 관련된 중국의 청대 시기에 발표된 성과를 파악하고 분석·평가한 것이다. 논문 색인의 대상은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에 수록된 논문(KCI)으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와 한국학술논문정보서비스(KISS)에 있는 논문을 대상으로 했다.

중국 청대 유학은 특수한 역사적 상황으로 말미암아 그 시기가 제한되어 있다. 우선, 명대 말기와 청대 초기의 전환기에 활동한 학자들을 어느 시기에 적용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있다. 아울러 일반적으로 1840년 아편전쟁을 분기점으로 그 이후를 중국 근대로 본다. 그러므로 청대 유학의 범위는 청나라 건국(1616년)부터 아편전쟁까지로 보았으며, 명말·청초의 유학자도 청대 유학으로 포함하였다.

청대 유학의 연구는 시기의 제한 때문인지 연구 성과가 그리 많지 않다. 2021년도의 학위논문은 없고, 연구 논문도 10편에 불과하지만, 2020년의 왕부지 관련논문 2편과 안원 논문 1편보다는 많다. 10편의 논문 중에서 철학에 관한 것은 5편이며, 연구대상도 왕부지 관련 논문 5편, 황종희 1편, 고영무 2편 등 명말·청초의 학자들에게 편중되어 있다.

10편의 논문 목록은 다음과 같다.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발행기관명	학술지명
1	김진근	왕부지 『周易外傳』의 无妄卦 풀이와 道·佛 兩家 비판에 대한 고찰	동양철학 제56집 (2021.12)	한국동양철학회
2	배다빈	淸儒와 荀子 사상 관계에 대한 비판적 접근 – 錢大昕의 순자 이해 및 순자와 戴震 人性論의 내재적 정합성을 중심으로	동서철학연구 제101호 (2021.9)	한국동서철학회
3	서성	王夫之 시론 중의 '現量'과 '詩的 想像'의 관계 고찰	중국문화연구 제54집(2021)	중국문화연구학회
4	안광호	顧炎武의 저술에 나타나는 중국 邸報 관련 기록 분석	중국학보 제96집(2021.5)	한국중국학회
5	이상은	황종희, 천하의 흥망에 필부도 책임이 있다	공업화학전망 제24권 제1호 (2021)	한국공업화학회
6	이상은	고염무, 실학의 새바람을 일으키다	공업화학전망 제24권 제2호 (2021)	한국공업화학회
7	이상은	왕부지, 기(氣)철학으로 새로운 세상을 꿈꾸다	공업화학전망 제24권 제3호 (2021)	한국공업화학회
8	이준경	『중용(中庸)』 '신독(愼獨)'의 도덕 교육적 의미 – 왕부지의 『중용』 이해를 중심으로–	도덕윤리과교육 제73호 (2021.11)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9	이철승	왕부지와 정약용 철학에 나타난 본성론 문제	동양철학연구 108집 (2021.11)	동양철학연구회
10	정빈나	대진(戴震)의 혈기(血氣)와 심지(心知)의 관계에 관한 연구 –역학(易學)의 음양(陰陽) 관계를 중심으로–	유교사상문화연구 제85집 (2021.9)	한국유교학회

위의 논문 목록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철학에 관한 논문은 5편이고, 2편은 문학과 역사에 관련된 것이며, 나머지 3편은 칼럼 형식으로 철학자를 소개한 글이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주제별 분류를 생략하고, 인물별로 분류해서 철학에 속한 논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려 한다. .

2. 인물별 분류

2021년도 발표된 청대 유학의 논문을 인물별로 분류하면, 왕부지 5편, 황종희 1편, 고염무 2편, 대진 2편이다.

1) 왕부지 5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발행기관명	학술지명
1	김진근	왕부지『周易外傳』의 无妄卦 풀이와 道·佛 兩家 비판에 대한 고찰	동양철학 제56집 (2021.12)	한국동양철학회
2	서성	王夫之 시론 중의 '現量'과 '詩的 想像'의 관계 고찰	중국문화연구 제54집(2021)	중국문화연구학회
3	이상은	왕부지, 기(氣)철학으로 새로운 세상을 꿈꾸다	공업화학전망 제24권 제3호 (2021)	한국공업화학회
4	이준경	『중용(中庸)』 '신독(愼獨)'의 도덕 교육적 의미 – 왕부지의 『중용』이해를 중심으로–	도덕윤리과교육 제73호 (2021.11)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5	이철승	왕부지와 정약용 철학에 나타난 본성론 문제	동양철학연구 108집 (2021.11)	동양철학연구회

다른 시기에 비해 연구 성과가 적은 청대 유학 연구의 성과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명말·청초의 왕부지·황종희·고염무 세 학자에게 편중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왕부지에 관한 연구가 많다. 철학에 관련된 왕부지의 논문은 2018년 4편, 2019년 5편, 2020년 2편으로 꾸준히 연구되어 오고 있다. 왕부지에 관한 2021년도 연구 성과를 보면, 철학에 해당되는 것이 3편, 문학 1편, 기타 잡글에 해당하는 칼럼이 있다.

이 중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비록 전문연구논문은 아니지만, 이상

은 교수의 「왕부지, 기철학으로 새로운 세상을 꿈꾸다」라는 칼럼이다. 더구나 이 글은 한국공업화학회에서 주관하는 『공업화학전망』에 실렸다. 아마도 과학기술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철학적 상상력을 소개하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기획은 인문학과 과학기술을 융합한다는 면에서 매우 의미있고 앞으로 힘써야 하는 일들이라고 생각한다.

철학에 관한 논문은 3편이며, 고등학교 교사인 이준경 선생의 도덕교육의 관점에서 왕부지 『중용』해석의 '신독'의 의미를 고찰한 것이 있다. 그리고 김진근교수와 이철승 교수의 두 논문이 있는데, 김진근 교수는 왕부지의 주역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2020년 2편의 논문을 포함해 꾸준히 왕부지에 관한 연구 성과를 내고 있다. 이철승 교수도 왕부지 연구로 박사학위 논문을 쓴 학자로서 왕부지와 관련된 연구 성과를 여러 편 내고 있다.

서성 교수의 논문은 불교의 인식론 개념인 '현량'을 문학의 '시적 상상력'과 관련해서 왕부지의 시를 고찰한 것으로 문학에 속하는 논문이다..

2) 황종희 1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발행기관명	학술지명
1	이상은	황종희, 천하의 흥망에 필부도 책임이 있다	공업화학전망 제24권 제1호 (2021)	한국공업화학회

명대 유학을 집대성했다는 유종주의 제자로서 명성이 높은 황종희

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명말·청조의 학자이다. 특히 중국최초의 체계적인 철학사인 『명유학안』과 혁명적인 정치철학과 입장을 밝힌 『명이대방록』으로 유명하다. 그러므로 당연히 황종희에 관한 연구 성과가 매우 많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의외로 황종희에 관한 연구가 그다지, 아니 적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매우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를 검색해 본 결과, 2017년 1편, 2018년 1편, 그리고 2021년 1편에 불과하다. 그나마 2021년의 성과는 연구논문이 아니라, 과학기술의 학술지에 실린 것으로서 과학기술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황종희에 관해 간단히 소개하는 칼럼이다. 『명이대방록』에 비추어 보면, 비록 철학은 아니라 할지라도 정치학이나 역사학 분야의 연구 성과가 있을 법도 한데 그렇지 않았다. 우리 학계의 분발이 요구된다.

3) 고염무 2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발행기관명	학술지명
1	안광호	顧炎武의 저술에 나타나는 중국 邸報 관련 기록 분석	중국학보 제96집(2021.5)	한국중국학회
2	이상은	고염무, 실학의 새바람을 일으키다	공업화학전망 제24권 제2호 (2021)	한국공업화학회

고염무에 관한 연구 성과도 많지 않다. 2017년 2편, 2018년 1편, 2019년과 2020년에는 없다. 그나마 3편도 철학이 아니며, 고염무의 시와 한국의 학자, 예컨대 「연천홍석주의 문학관과 고염무의 영향」과 같은 논문들이다. 위의 2021년도 2편의 논문을 포함해 전문적인 철학 연

구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이 또한 매우 의외라고 생각한다. 널리 알고 있듯이, 고염무는 경세치용을 주장한 실학을 개척한 대표적인 학자인 동시에 고증학의 기틀을 마련한 사람이다. 한국유학에서 실학에 관한 연구는 매년 몇십 편씩 논문이 발표되는 것에 비한다면 더욱 의외라는 생각이 든다.

2020년 고염무에 관한 논문은 2편이다. 하지만 1편은 역사에 해당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앞에서 보았던 이상은 교수의 연속기획에 의한 칼럼이다.

4) 대진 2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발행기관명	학술지명
1	배다빈	淸儒와 荀子 사상 관계에 대한 비판적 접근 – 錢大昕의 순자 이해 및 순자와 戴震 人性論의 내재적 정합성을 중심으로	동서철학연구 제101호 (2021.9)	한국동서철학회
2	정빈나	대진(戴震)의 혈기(血氣)와 심지(心知)의 관계에 관한 연구 –역학(易學)의 음양(陰陽) 관계를 중심으로–	유교사상문화연구 제85집 (2021.9)	한국유교학회

이른바 '청대철학'이라면, 먼저 떠오르는 학자로 명말·청초의 세 선생(왕부지·황종희·고염무)을 제외하고, 실용주의로 유명한 안이학파의 안원과 이공, 그리고 대진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살펴본 세 선생을 제외하고 안원과 이공의 연구성과뿐만 아니라, 대진에 관한 연구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대진에 관한 논문은 2021년 2편 이외에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한 편도 없는 실정이다. 우리 동양철학계의 성찰이 필요하다.

그래도 2021년의 대진 연구 2편은 순수한 철학 연구로서 배다빈

선생의 논문은 비교논문이고, 정빈나 선생의 논문은 순수한 대진에 관한 논문이라는 점에서 위안이 된다.

3. 주요논문 분석 및 비평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2021년도 청대 유학과 관련된 국내 연구성과는 모두 10편이며, 그 가운데 철학연구에 속하는 것은 5편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5편의 철학 논문에 대해서만 분석하고 비평하고자 한다. 서술은 연구대상별로 왕부지와 대진의 순서를 따르고, 비교논문은 뒤에서 다루겠다. 왕부지 논문의 경우는 김진근·이준경·이철승, 대진 논문의 경우는 정빈나·배다빈의 순서로 서술하겠다.

(1) 왕부지 관련 논문

1) 김진근: 「왕부지『周易外傳』의 无妄卦 풀이와 道·佛 兩家 비판에 대한 고찰」

김진근 교수는 왕부지의 『주역』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학자로서 국내의 몇 안 되는 왕부지 전문연구자이다. 그는 지난해에도 「왕부지의 否卦 풀이에 드러난 君子觀 고찰」 이라는 논문을 썼듯이 꾸준히 왕부지에 관한 연구성과를 내고 있다. 2021년에도 왕부지의 『주역』 연구자답게 왕부지 『주역외전』의 '무망괘'에 관련된 논문을 작성했다.

그는 이 논문에서 왕부지의 『주역외전』에 나타난 '무망괘' 해석의 함축된 의미를 분석하고, 이어서 그 해석의 근거라고 볼 수 있는 기일원론(氣一元論)에 대해 고찰하였다. 구체적으로 논문의 요지를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왕부지 철학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무망괘' 해석에 의거해 유가의 세계에 관한 긍정(有)의 논리, 즉 '있음'과 '생함'·'길러냄' 등의 의미를 추출하여 세계의 '참됨'·'망령됨 없음'을 밝히고 있다.

둘째, 『주역외전』의 해석에 드러난 도가와 불가에 대한 비판을 고찰했다. 도가와 불가가 자신들은 '없음(無)'의 차원으로 설정하고 유가는 '있음(有)'의 차원에 있다고 보고 유가를 비하하고 조롱하는 것을 비판했다. 왕부지는 도가와 불가가 도리어 세계의 본질을 오인해 망령되게 만들었다고 비판함으로써 유가를 옹호한 것임을 밝혔다.

셋째, 위와 같은 왕부지 논의의 근거는 모두 그의 기일원론에 있다는 점을 밝혔다. 다시 말해, 왕부지는 태허(太虛) 속에서 음기·양기 두 기가 상호 유기적 작용을 통해 거대한 조화(太和)를 이루며, 무시무종(無始無終)으로 본체와 객형(客形) 사이를 오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라는 것이다. 예컨대 인간의 감각능력에 의해 '있다'고 보는 차원(明)과 인간의 감각능력을 넘어서는 차원으로 '없다'고 여겨지는 차원(幽)이 모두 기(氣) 하나의 세계로 환원된다는 것이다. 기는 이들 두 차원을 관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없음(無)'과 '있음(有)' 사이가 아닌 '어둠(幽)'과 '밝음(明)' 사이에서 명멸(明滅)한다는 것이다. 이러함은 천지만물의 끊임없는 생겨남에 의해 알 수 있으며, 또한 이것이 바로 '망령됨 없음'의 실상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도가와 불가는 이러한 점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오히려 '없음(無)'을 전제로 유가의 '있음(有)'을 비판하고 조롱한 것이 오히려 망령된 것이고 비판했다는 점을 밝혔다.

이 논문의 요지는 한 마디로 왕부지가 기일원론에 근거해 도가와 불가를 비판했다는 점을 밝히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2) 이준경: 「『중용(中庸)』 '신독(愼獨)'의 도덕 교육적 의미
–왕부지의 『중용』이해를 중심으로–」

이준경 선생은 고등학교 교사로서 동양철학 연구자라고 여겨진다. 보기 드물게 왕부지의 『중용』 해석을 선택해 교육적인 의미를 살펴본 의미있는 논문이라고 생각된다. 이 논문의 요지는 『중용』의 '신독(愼獨)'이 『중용』의 핵심이자 실천 개념인 '성(誠)'의 실현을 위한 노력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도덕 교육자의 입장에서 지니는 의미를, 특히 왕부지의 『중용』 이해에 기반하여 그 실천적 의미를 탐색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송대 신유학에 반대하는 왕부지는 『중용』을 실천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을 통해 교육적인 의미를 밝히고 있다. 왕부지는 '신독'의 중요성을 '일음일양(一陰一陽)'하는 도(道)의 역동적인 성격에 기반한 『중용』의 '성(誠)'과의 관련성 속에서 '신독'이라는 내면적 성찰이 가르침을 수행하는 교육자의 관점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아울러 일상에서 끊임없이 선(善)을 추구하고 자 하는 군자(君子)의 노력이 '가르쳐 기르는(敎育)' 일의 핵심적 조건임을 '신독'의 실천적 의미를 통해 논증하였다. 그리고 『중용』의 '신독'이 일상의 사물에 감응하여 생겨나는 내면의 감정에 대해 사려하여 선악의 기미를 살피는 것으로 도덕 주체의 실존적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행해져야 하는 '성(誠)'의 수양임을 밝혔다.

둘째, 『중용』의 관점에 의하면, 교육의 본질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학습자의 성선의 마음을 존양하여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그 궁극적 지향은 학습자 스스로 존양성찰의 '성(誠)' 수양을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서 '신독'은 지속적인 존양공부로 가능한 성

찰로서 군자의 특성이다. 이런 점에서 필자는 『대학』의 '신독'을 수양과 배움의 태도에서 '스스로 속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실제적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중용』의 '신독'과 구분했다. 즉, 『대학』의 '신독'은 평소 행해지는 존양공부로서 학문과 수양의 과정에서 자신에게 정직하여 거짓이 없는 태도라는 것이다. 이렇게 정직한 노력만이 일이 닥쳤을 때 선악의 기미를 알아 중용을 실천하도록 하는 『중용』의 '신독'이 가능하다는 것임을 밝혔다.

셋째, 『중용』에 의하면 교육은 진리를 먼저 깨우치고 수양할 줄 아는 교육자가 학습자들 역시 이 진리를 깨우치고 '신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왕부지는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자의 '신독'을 강조했다. 즉, '신독'으로 중용의 도리를 행할 수 있다면 평범한 사람들도 중용의 도리를 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교육적 관점에서 교육자의 역할이 실질적으로 중요함을 의미한다. 교육자의 '중용'이 학습자들을 교화하여 그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다. 『대학』의 '자겸(自謙)'은 교육자가 '신독' 수양을 통해 경험하는 '성(誠)'의 경지이며, 도덕적 만족감 내지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다. 교육자의 이상은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처럼 이 논문은 실제 교육현장을 통해 얻은 경험에 근거해 '신독'의 도덕 교육적 의미를 지적했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할 만한 논문이라고 여겨진다.

3) 이철승: 「왕부지와 정약용 철학에 나타난 본성론 문제」

이 논문은 왕부지와 정약용의 본성론을 비교 연구한 것이다. 이 논

문을 서술하게 된 동기를 필자는 다음과 같이 "지금까지 왕부지의 본성론과 정약용의 본성론을 각각 독립적으로 연구하거나 성리학과 비교한 연구는 적지 않지만, 왕부지와 정약용의 본성론을 직접 비교하여 체계적으로 연구한 논문은 거의 발견되고 있지 않다. 전자가 유가철학의 본성론 연구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이, 후자의 연구도 의의가 있다. 왜냐하면 성리학과 기 철학 및 성리학과 성기호설의 비교 연구가 주로 본성에 대해 선험이나 경험의 관점에서 논의된 것과 달리, 왕부지와 정약용의 본성론 문제는 경험을 존중하면서도 인심과 도심의 관계 부분에서 견해 차이를 드러내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먼저, 왕부지의 기선·리선(氣善·理善)론과 정약용의 호선오악(好善惡惡)의 성기호설(性嗜好說)은 전통적인 성리학자의 기(氣)의 유선유악(有善有惡)과 리선(理善)에 근거한 성선설과 다르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어서 왕부지와 정약용의 유사함과 다른 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첫째, 왕부지는 본성을 고정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생성되는 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본성을 시공을 초월한 형이상학적인 불변의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하는 현실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특성으로 여기는 것이다. 정약용 역시 본성을 변화하는 현실에서 삶을 이어가는 인간이 지향하는 가치라고 한다. 이런 점에서 정약용은 성리학자들이 중시한 '본연지성'을 불교라고 비판하며, 본성은 인간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마음의 기호라고 하였다.

둘째, 왕부지와 정약용은 맹자의 사단(四端)에 대해 성리학자들이 도덕감정의 영역에만 국한시키는 것과 다르게 도심(道心)에 해당하는 본성이라고 한다. 정약용은 4단의 '단'을 본성의 실마리가 아니라, 본성

을 실행하는 시작이라고 하며, 왕부지는 4단을 7정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도심의 아랫부분에 해당하는 본성이라고 한다. 하지만 왕부지와 정약용은 불선(不善)의 근거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한다. 정약용은 인심(人心)을 불선의 근거로 여기지만, 왕부지는 인심과 도심을 대립의 관계가 아닌 유기적인 결합의 관계로 보고, 제자리(位)에 부합하지 않는 상황을 불선의 근거라고 한다. 이러한 점은 왕부지가 생물학적인 면과 도덕적인 면을 대립관계가 아니라 유기적인 관계로 설정한 것과 다르게 정약용은 도덕적인 영지(靈知)의 측면과 본능적인 형구(形軀)의 측면을 구별하여 영지의 기호를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왕부지는 맹자의 천형(踐形)론에 근거하여 몸과 정신의 유기적인 결합의 관점에서 성선설을 펼쳤다면, 정약용은 맹자의 대체(大體)와 소체(小體) 가운데서 대체의 관점에서 본성론을 제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대진 관련 논문

1) 정빈나: 「대진(戴震)의 혈기(血氣)와 심지(心知)의 관계에 관한 연구 –역학(易學)의 음양(陰陽) 관계를 중심으로–」

이 논문은 대진의 혈기와 심지의 관계를 역학에 근거해 기일원론의 입장에서 분석한 것이다. 필자에 의하면, 대진은 혈기와 심지는 인간의 본성이며, 음양의 기(氣)라는 하나의 근본에서 나온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심지가 어떻게 혈기의 영향을 받으며, 혈기와 심지가 연결되는 작용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이 논문은 역학에서 제시한 음양의 상호작용을 통해 혈기와 심지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그 내용의 대략은 다음과 같다.

혈기와 심지는 상호작용의 구조에서 하나로 이어지는데, 감각적 영역의 지식을 획득하는 일과 정신적 영역의 지식을 획득하는 일은 음양의 상호작용에서 이루어진다고 한다. 혈기와 심지에 관한 대진의 사유의 특색은 세계와 사물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상적인 인식을 중시하고 신체와 정신을 분리시키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이것은 전통적인 사유가 외부의 도전에 맞서 자기를 재구성한 결과물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2) 배다빈: 「淸儒와 荀子 사상 관계에 대한 비판적 접근
–錢大昕의 순자 이해 및 순자와 戴震 人性論의 내재적 정합성을 중심으로」

이 논문은 전대흔과 대진의 순자철학에 대한 이해에 근거해 순자철학이 청대에 끼친 영향, 즉 청대의 순자학사(荀子學史)를 살펴본 것이다. 논문은 첫째, 명청교체기 이후의 순자지위의 제고, 둘째 전대흔의 순자에 대한 긍정적 관점 및 개념적 오류, 셋째 대진과 순자 인성론 간의 내재관계 및 단면적 이해에 관한 서술로 구성되어 있다. 이 논문은 청대의 순자학사에 관한 것으로 철학적인 의미는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된다.

이상과 같이 2021년도에 나온 청대 유학 중에서 철학과 관련된 5편의 논문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다. 그러나 연구성과 뿐만 아니라, 주목을 끌만한 논쟁적인 논문도 그다지 많지 않다는 아쉬운 생각이 든다..

4. 평가와 전망

앞에서 이미 언급했지만, 청대 유학 혹은 청대 철학은 특수한 역사적 상황 때문에 그 범위가 짧다. 이런 까닭에 청대 유학에 관한 국내 연구 성과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실제로 많지 않았다. 이러한 원인은 국내의 동양철학 연구자들이 많지 않은 점도 있겠지만, 아마도 연구대상과 주제가 어떤 특정한 것에 치우쳐 있기 때문이 아닌지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 수 있다.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의 국내 동양철학의 연구경향을 개괄해 보면, 7·80년대는 선진철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았던 것 같고, 90년부터 송·명대 철학의 연구자들이 증가한 것 같다. 특히 2000년대에 들어서는 양명학 연구가 성행하여 국제양명학 학술대회도 매년 거행되고 그에 따라 양명학 연구자도 증가한 것 같다. 그리고 10여년 전부터는 현대신유학이 유행해서인지 근현대 중국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추세이다. 그러나 청대는 송명과 근현대에 끼인 시기라 그런지 그다지 많은 관심을 갖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다행히 명말·청초의 왕부지·황종희·고염무에 대한 연구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청대의 철학이 이론적으로 주목받을 만한 것이 다른 시기보다 적다고 할 수 있지만,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새로운 생각들이 존재했다는 것을 무시할 수 없다. 고증학적 사유·실사구시적 학문경향 등을 이끈 건가(乾嘉)학파와 안이(安李)학파의 철학은 매우 중요한 학문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아울러 동·서 학문의 융합이라고 볼 수 있는 이른바 천주실의·영언여작 등의 서학(西學)에 관한 연구도 무척 중요하다

고 생각한다. 이처럼 청대에도 연구할 만한 다양한 사조들이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 학계의 청대철학에 대한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역사나 철학에 단절된 것이 없다면, 근대나 현대의 삶이나 생각을 연구하는 데는 반드시 그 이전의 것에 대한 다양한 탐구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겠다.